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교육포럼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육의 전환, 발도르프에서 길을 찾다

| 2026년 9월 5일(토) 오후 2시
| 경기도 교육청 조원청사 별관2층 대강당

주최 ·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Korea Association of Waldorf Schools

후원 ·  경기도교육청
Ky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차례

여는 말 / 이새날(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의장)	4	
포럼 취지와 프로그램	5	
축사자 소개		
콘스탄차 칼릭스, 필립 로입케 / 괴테아눔 교육 분과대표	7	
나나 괴벨 / 독일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예술친구회 상임이사	9	
요하네스 쾰 / 현)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교사세미나 멘토 교사	10	
비어기트 크로머 /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유아교육대학 교수	11	
김덕순 / (사)한국인지학협회 대표이사	12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13	
박효진 / 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14	
발제 1. 한국 교육현실의 진단과 대전환 / 김누리 교수(중앙대학교)		15
발제 2. 미래 교육의 이정표, 발도르프 교육 / 이정희 박사(사)한국인지학센터)		21
발제 3. 발도르프 교육 현장의 소리 / 이은화 선생님(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29
패널 토론. 발도르프 교육의 현재와 미래		
신다인, 이민형, 윤동휘, 고민아		35
발도르프 교육과정 개관 (학년별 교과과정)		36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연혁 및 활동		37
회원학교 소개		38

여는 말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이 주최하는 2026 발도르프교육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와 효율을 넘어,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발도르프교육의 현장 경험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국교육의 전환, 발도르프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에서 본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이하 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교류마저 끊겼던 시절, 학교 간의 새로운 협력을 꿈꾼 사람들의 간절한 의지로 탄생했습니다. 그 후 연합은 각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하며 발도르프교육의 가치를 더욱 높여 왔습니다.

20여 년 전, 극심한 경쟁 중심의 공교육에 던진 질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한국 땅에 발도르프학교들이 하나둘 세워졌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참된 교육 운동에 동참하고자 했던 순수한 개인들의 의지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전국 15개 회원학교가 함께하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100여 년 전인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와 뜻을 함께한 이들은 인류를 위한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 교육인 발도르프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발도르프교육은 늘 척박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따뜻한 빛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첫 학교가 인류의 빛이었듯, 가혹한 교육 현실 속에서 세워진 한국의 학교들 또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향한 연합의 첫걸음은 코로나라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제 연합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 발도르프학교만을 넘어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담당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주 작은 불씨를 지피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찾아가고 인간의 본질을 세워가는 발도르프교육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늘 희망의 길을 밝히는 빛이었듯, 오늘 이 포럼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른 길을 찾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9월 5일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의장 이 새 날

포럼 취지와 프로그램

포럼 취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며,
발도르프교육 현장의 경험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찾는다.

세부 시간표

시간	순서	내용
13:40~14:00	참가자 등록	사전 등록자 접수
14:00~14:10	개회사·내빈 소개·축사 영상	콘스탄차 칼릭스·필립 로입케 (괴테아눔 교육 분과대표), 크로머, 나나 괴벨, 요하네스 쾰 선생님 / 김덕순 (사)인지학협회장님 / 안민석 교육감 / 박효진 상임대표
14:10~14:20	오케스트라 연주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7·8학년)
14:20~15:00	발제 1	한국 교육현실의 진단과 대전환 — 김누리 교수
15:00~15:40	발제 2	미래 교육의 이정표, 발도르프 교육 — 이정희 박사
15:40~16:20	발제 3	발도르프 교육 현장의 소리 — 이은화 선생님
16:20~16:35	휴식	참석자 교류
16:35~17:25	패널 토론	발도르프교육의 현재와 미래 (발제자 3인 + 학부모 1인 + 졸업생 2인 + 현직 교사 1인)
17:25~17:55	질의응답	청중 질의 및 답변
17:55~18:05	폐회	폐회사 및 감사 인사, 단체 사진 촬영

축사자 소개

콘스탄차 칼릭스 Constanza Kaliks | 괴테아눔 교육 분과대표

- 헤이그썬클 이사진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괴테아눔 대표이사

필립 로입케 Philipp Reubke | 괴테아눔 교육 분과대표

- 헤이그썬클 이사진

나나 괴벨 Nana Göbel

- 독일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예술친구회 상임이사
- 국제 슈타이너/발도르프 교육협의회(Hague Circle) 이사,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

요하네스 쿨 Johannes Kühl

- 전) 괴테아눔 자연과학분과 대표, 물리학자·전 발도르프학교 상급과정 교사
- 현)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교사 세미나 멘토 교사

비어기트 크로머 Birgit Krohmer

- IASWECE 슈타이너발도르프영유아 국제연대 이사
- 독일 발도르프 유치원 연합 이사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발도르프 유치원 연합회 상임이사
-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유아교육대학 교수

김덕순 | (사)한국인지학협회 대표이사

- (사)한국인지학협회 설립 및 대표 활동
- 루돌프 슈타이너 원전 번역 및 연구
- 발도르프 현장 학술 활동
- 주요 역서: 『일반인지학협회의 주춧돌 놓기 1923/24』,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24』
- 슈타이너의 『주춧돌 명상시』 연구 및 번역 작업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전)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 (5선)

박효진 |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 전)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상급(중등) 설립 이사
- 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



Goetheanum · Freie Hochschule für Geisteswissenschaft
Pädagogische Sektion

KAWS Korea
Association of Waldorf Schools Korea
599-13, Cheonjinam-ro,
Toechon-myeon,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Dornach, August 18, 2026

Dear Friends of the Waldorf School Association in Korea,

With great joy and best wishes for your work, we extend our greetings from the Pedagogical Section at the Goetheanum.

We are glad to accompany your journey and learn about your contributions to the worldwide Steiner and Waldorf school movement. We highly value your unwavering commitment to provi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a healthy, harmonious and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as Rudolf Steiner's pedagogical impulse makes possible.

For your work, your initiatives, and your collaborative endeavors with educational authorities, families,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all friends involved in the task of education - we wish you strength and inspiration. Congratulations on all that you accomplish!

With warmth and gratitude

Constanza Kaliks

Philipp Reubke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의 친구들에게,

괴테아눔 교육분과에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슈타이너 및 발도르프 학교 운동에 기여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알게 되고 그 여정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적 충동이 가능하게 하는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조화로우며 지원하는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바치는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 가정, 교사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이라는 과업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의 협력과 수고에 깊은 힘과 영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어낸 모든 성취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기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콘스탄차 칼릭스, 필립 로입케

Dear friends, for your forum on the 5th of September, I would like to send you heartfelt congratulations, my best wishes, and hope you will really achieve a step forward in communicating the aims of Waldorf education.

We are living now in a world of challenges. No one knows what the future will bring, whether it will be peaceful, we do not know what influences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ave on the existence of mankind.

And therefore, we have to raise the question anew: What is education for? Why do we do education? What do we want to achieve?

And I think the answer is, on the one side is new, on the other side old. We still want to educate children in such a way that they are interested in the world. We still want to educate children in such a way that they are willing and able to take initiative, to be responsible and act accordingly.

We are very looking forward to educate children in such a way that they create resilience, which means they create the ability to act and live in such a way that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they are able to look forward and develop joy for learning and joy for the future.

This way, I would like to convey my best wishes to your forum and wish the Waldorf movement in Korea to contribute tremendously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s and the challenges of education worldwide.

With my kind regards, yours,

Nana.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9월 5일에 열리는 포럼에 진심 어린 축하와 최고의 축원을 보내며, 발도르프 교육의 목표를 전달하는 데 진정으로 한 단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평화로울지, 인공지능이 인류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질문을 새롭게 던져야 합니다.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왜 교육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리고 제 생각에 정답이라는 것이 새로울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며, 그에 맞게 행동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 배우는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포럼에 마음 깊은 축원을 보내며, 한국의 발도르프 운동이 우리 시대의 과제들과 전 세계 교육의 도전 과제들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나나 드림.

축사 | 요하네스 쾰

Hello dear attendees and dear friends of Waldorf education in Korea.

I was honored to give a short address to this meeting. For many years now, I had the honor to work with many Waldorf teachers here in Korea.

And we know that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parents and society, because there we prepare the future.

And in Waldorf schools, we try that by finding the right, the appropriate way of method and content for a certain age. So our work wa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human development.

And we all know teaching is hard work. It's not only teaching 25 lessons a week, but it's also preparation which never ends, grading papers which takes a lot of time, communication with parents, with fellow teachers, attending meetings, and so on.

In addition, we don't have a director at the Waldorf schools, so the administrative work is done by the teachers themselves. And that's a huge difference, because then the teachers are no longer employees with just a job, but they are entrepreneurs. The school is our own thing.

And so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teachers and parents of the Waldorf movement in Korea for what they have achieved over the last 20 years—establishing schools, gaining the trust of the parents, and gaining the love of the children.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letting me be a little part of that. Many of you have become my friends.

안녕하세요.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발도르프 교육을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모임에서 짧은 축사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한국의 많은 발도르프 교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교육은 부모와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특정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과 교육 내용을 찾아 나감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업은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5시간 수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없는 수업 준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 평가, 학부모 및 동료 교사와의 소통, 회의 참석 등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발도르프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따로 없기 때문에 행정 업무도 교사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교사가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주체적인 운영자가 되며, 학교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를 세우고,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며, 아이들의 사랑을 이끌어낸 한국 발도르프 운동의 교사 및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 또한 그 여정에 작게나마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며,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저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Dear friends of Steiner Waldorf Education in South Korea,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einer Waldor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German Kindergarten Association, I do wish you all the best for your so very important work in the Association of the Rudolf Steiner Schools in South Korea.

The ideals of Waldorf education can come alive in the way we prepare ourselves in our studies, through practicing art, and for working together with our colleagues. The study of man comes alive in the moment of meeting with the child, not in methods; they are only the tools for our own training.

I would like to use the picture of a tree for our anthroposophical background, with roots deeply grounded, and a trunk strong and upward going towards heaven, and many, many branches with blossoms, leaves, and fruits. All parts are belonging and helpful, and the well-being is also dependent on the surroundings. And different seasons of the year give different impressions of the tree. The branches all belong to the organism and are all needed for the well-being and growth.

For a healthy childhood, we need all branches of the tree, like agriculture, art, medicine, and the Steiner Waldorf pedagogy. In the way of our working together, we show our connection to our ideals, and that is what parents are looking for—to give their children a secureness and a chance to feel at hom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Especially the questions around AI can awaken us for the wonderful richness of our education of body, soul, and mind in an always age-appropriate way.

The task is important, and we need to work together in a supportive way. It is also important for parents to be able to experience the ideals of our Steiner Waldorf education. Our ideals can be shining through our work in every moment with the children, the colleagues, and the parents.

I wish you a very, very good day, and I'm saying thank you for being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work in South Korea.

한국의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 발도르프 영유아교육연합회와 독일 발도르프 유지원연합회를 대표하여, 한국 발도르프학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정신과 이상은 우리가 연구를 통해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예술 작업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인간학’은 교수법이 아닌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교수법은 그저 우리 스스로를 연마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지학적 배경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깊게 뿌리내린 뿌리와, 하늘을 향해 곧고 튼튼하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 그리고 풍성한 꽃과 잎, 열매를 맺은 수많은 가지처럼 말이죠. 나무의 모든 부분은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를 도우며, 나무의 건강은 주위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는 저마다 다른 인상을 줍니다. 가지들은 모두 한 생명체에 속해 있으며, 나무가 잘 자라고 성장하는 데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어린 시절을 위해서는 농업, 예술, 의학, 그리고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학 등, 나무의 모든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육적 이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모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안겨주기 위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여러 질문들은 연령에 맞는 신체, 영혼, 정신의 풍요로운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이 과업은 중요하며, 우리는 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발도르프 교육의 이상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들, 동료,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이상은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한국에서 진행된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사 | 김덕순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인지학협회 대표 김덕순입니다.

‘한국 교육의 전환, 발도르프에서 길을 찾다’ 교육포럼을 축하하며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도르프교육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사 교육은 물론 직접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며 학생들과 교류하고 교사회에도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보름 전인, 1925년 3월 15일에도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발도르프교육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발도르프 교육. 그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진정한 이해에 빛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입니다. 인지학은 단순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직접 흘러들 수 있는 지혜이며 정신적인 진리입니다. 인지학은 ‘머리’로만 또는 단지 ‘가슴’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매일 행하는 것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행하는 삶, 즉 삶이 삶에 개입해 들어가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발도르프교육입니다. 그래서 발도르프교육은 소위 인지학의 응용 분야가 아니라, 인지학을 실천하고 직접 손발로 행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포럼이 우리 교육 현실에 던지는 질문에 깊이 공감하며 (사)한국인지학협회와 발도르프교육과 같은 삶의 현장이 내실 있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럼이 한국 교육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인지학협회 대 표 김 덕 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안민석입니다.

‘한국 교육의 전환, 발도르프에서 길을 찾다’ 교육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이새날 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국내외 발제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예술과 체험, 관계와 협력을 중시하며 아이의 몸과 마음, 생각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발도르프교육의 오랜 실천은 오늘 우리 교육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도 아이들이 경쟁에 지치지 않고 저마다의 속도와 빛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벽을 낮추고, 다양한 교육적 실천과 현장의 목소리가 공교육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넓게 듣고 함께 해답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힘을 키우는 새로운 길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그 변화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축사 | 박효진

안녕하십니까. 한때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의 학부모이자 상급과정 설립 이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길을 함께한 박효진입니다.

오늘 “한국 교육의 전환, 발도르프에서 길을 찾다”라는 뜻깊은 주제로 마주한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교육포럼이 우리 교육의 아픈 현장에 새 숨을 불어넣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이들은 점수와 등수로 잘라낸 획일적인 틀 속에서 차가운 경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 시들어가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그 격랑 속에서 공교육의 많은 선생님들은 냉소와 최소주의에 고립되어 가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고유한 빛을 아끼고, 예술과 놀이,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그 빛을 온전히 피워내어 왔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길을 만들며 흘린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부딪치며 개척해 오신 이 걸음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육이 가야 할 뚜렷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품어온 ‘더 나은 교육, 제대로 된 인간다운 교육’은 결코 구호로 끝나선 안 됩니다. 내 아이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온기가 담장을 넘어 공교육 전체로, 무력감에 빠진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삶 속으로 깊게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저 역시 발도르프의 흙냄새를 맡으며 아이들을 키워낸 그 간절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 공교육 현장이 함께 스며들 수 있도록 끝까지 손잡고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삶과 내일을 지켜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슴 깊이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과 교육 현장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와 결단이 다음 세대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진 발도르프의 소중한 나무들이, 마침내 우리 교육이라는 광활한 들판에 울창하고 푸른 숲을 이루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발도르프 식구 여러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돌아올 여러분의 고단했던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외롭고 외딴섬처럼 느껴질 때마다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로 여러분의 걸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꿈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함께 걸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의 개최를 가슴 가득 축하드리며,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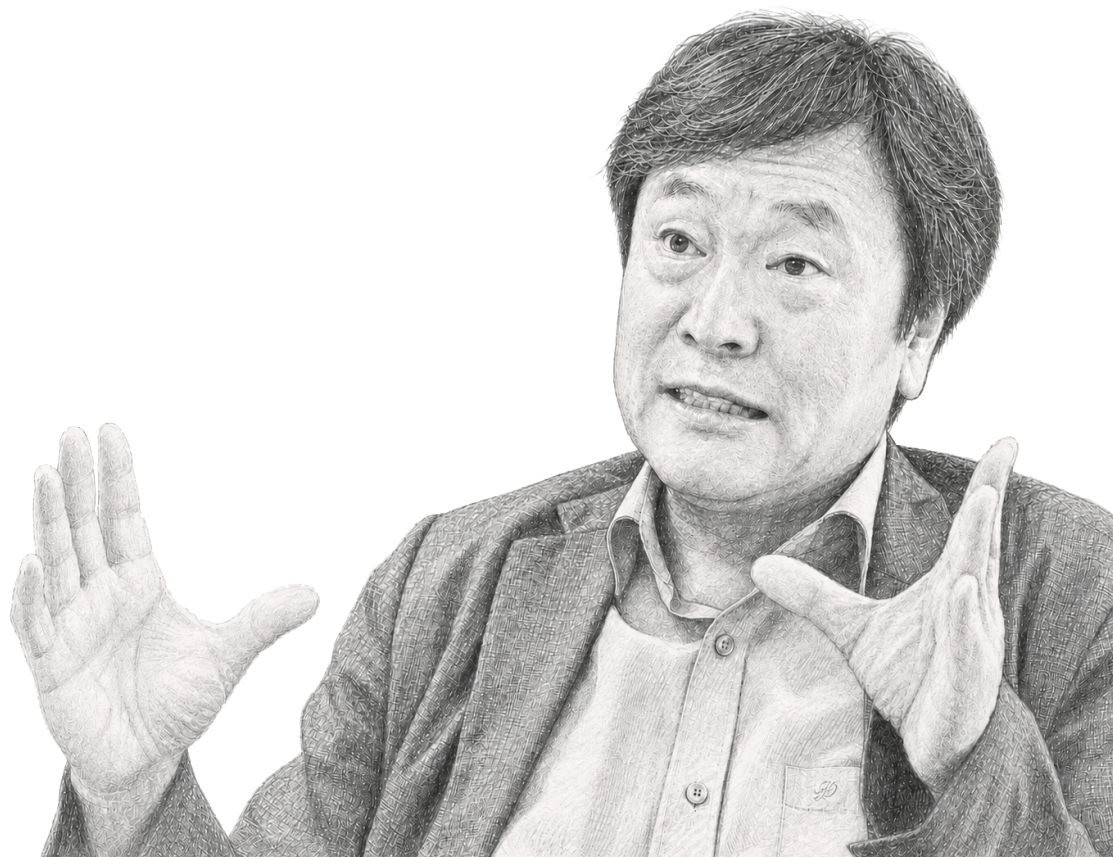
2026년 9월 5일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졸업생 부모 박 효 진 드림

발제 1. 한국 교육현실의 진단과 대전환

김누리 교수 (중앙대학교)

- 중앙대 독어독문학과와 동 대학원 독일유럽학과 명예교수,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역임
-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독일 현대소설 연구로 박사 학위 취득
- 저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없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알레고리와 역사』 외 다수
- 공저: 『코로나 사피엔스』(1, 2), ‘통일 독일을 말한다’ 3부작 외 다수
- 역서: 헤르만 헤세 『황야의 이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아직도 시간은 있다』



1.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

우리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부산에서 세 아이가 뛰어내리더니, 경기도 광주에서, 영등포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한창 꽃다운 십대의 아이들이 허공에 몸을 날려 스러지고 있다. 우리는 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았는지. 이들의 처절한 고통과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한국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지난해, 이 땅에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4년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다. 인구 10 만 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엄격히 말하면, 한국 학생들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 사회적 타살이다. 병든 사회, 잘못된 교육이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살인적인 경쟁교육이 아이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깊은 의미에서 보면, ‘살인 교육’을 용인하는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의 공범이요 방조범이다.

우리 아이들의 불행은 이미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진 바이다. 프랑스의 <르 몽드>지는 몇 해 전 한국 교육을 심층 취재한 후에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결론지었다. 한국 교육이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로 우리 학생들의 고통과 불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학생이 30 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를 보고, 청소년 자살 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답은 충격이었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 강남의 정신의학과 병원은 예약 잡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금 한국에선 학생 세 명 중 하나가 상시적으로 자살이나 자해 충동에 시달리고, 작년 한해 동안 자살 혹은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6400명에 이른다. 작년에 자살한 학생만 무려 221명이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가 157명이니,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이태원 참사가 반복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불행에 너무도 무심하다. 사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침묵이다. 아무도 이 문제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비극의 현장은 너무도 빨리 치워지고, 야만의 일상 은 너무도 빨리 회복된다. 최소한의 애도도 없이 아이들의 죽음은 잊혀진다. ‘청소년 자살 보도준칙’이라는 명목하에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지배한다.

얼마 전 국회에선 “교육대전환과 공론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교육의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지만, 끝까지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나는 먼저 당혹스러움을 토로하며, 부산에서 자살한 세 학생을 위한 묵념을 제안했다. 눈을 감으니 마지막 순간 20층 높이에서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가 엄습해와 참담한 기분이었다.

“교육 문제를 다루는 학술대회에서 최근에 벌어진 충격적인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데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육 문제가 어디 있는가. 지난번 서이초 교사의 비극이 벌어졌을 때, 여의도에 30 만 명의 교사가 모였다. 부산에서 세 명의 여고생이 자살했는데, 우리 사회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그들이 떨어진 화단에 ‘촛불 하나, 꽃 한 송이 바쳐졌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들 죽음의 의미를 살피는 글 하나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영혼’은 어떠한가.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연이은 자살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메마른 영혼을 가졌는지를 폭로한다. 우리가 왜 이리도 무뎠는가, 왜 이토록 무정하고 무감한 사회가 되었는가.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알렉산더 미첼리히는 나치 과거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는 독일 사회를 “슬퍼할 능력을 상실한 사회”라고 비판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 우리는 비극적 죽음을 묵도하고도 애도할 능력을 상실한 사회가 되었다. 전후 독일 사회가 나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슬퍼할 능력을 잃었다면, 지금 우리는

야만적 경쟁 사회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애도의 능력을 잠재웠다.

새로운 정부에 보내는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말라. 우리 아이들도 존엄한 인간이다.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저 파렴치한 엘리트들을 키워내기 위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교육은 이제 끝내야 한다.

2. 민주주의의 성패는 교실에서 갈린다

민주주의가 결판나는 곳은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이다. 교실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기에 한 나라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수준은 교실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위대한 광장 민주주의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한 민주사회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실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불공정’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차별’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최악의 불평등, 불공정, 차별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평등은 경제 민주화의 부재에 근본 원인이 있고, 불공정은 사회 민주화의 결함에서 기원하며, 차별과 혐오는 문화 민주화의 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사회, 경제, 문화 민주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 불공정, 불평등, 차별과 혐오의 사회를 만든 주범인 것이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 테오도어 아도르노가 1960년대 독일 사회에 팽배한 ‘일상의 파시즘’을 비판하며 던진 이 말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파시즘’의 시대는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의 죽음과 함께 최종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은 여전히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쟁주의, 우열의식, 강자 동일시, 약자 혐오, 동조 습성, 폭력성, 공격성, 흑백논리 등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파시즘’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를 넓히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교육에 근본 원인이 있다. 한국의 교실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가, 아니면 잠재적 파시스트를 기르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이 기른 ‘전교 1등들’이 보인 최근의 행태만 둘러보아도 충분하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으로 요청된 공공병원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 의사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게 계속 무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피의자로부터 고급 향응을 대접받은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는 검사들 - 이들이 모두 한국 교육이 키운 최고의 모범생이라는 사실은 한국 교육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오만한 엘리트, 일상적 파시스트를 길러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 교육의 ‘영혼’인 경쟁 이데올로기가 깊은 의미에서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나치즘을 보라. 그들은 이 세계를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로 보았고, 그 정글에서는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이라는 다윈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강자가 약자를,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경쟁 이데올로기에는 이처럼 파시즘의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을 ‘정치적 미숙아’로 보기 때문이다. 한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기수였던 (중고등) 학생들이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셋째, 교사들이 ‘정치적 금치산자’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사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파시즘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정치적 미숙아’가 ‘정치적 금치산자’에게 교육을 받

는 교실에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시민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최근 중요한 정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10대 국회의원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 ‘선진국’ 시민으로서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10대는 더 이상 정치적 미숙아가 아니며, 교사는 더 이상 정치적 금치산자가 아니다. 이제 우리 교실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묘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불공정, 불평등, 차별/혐오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교실에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기품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제부터 우리 교실에서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해야 한다.

3.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중이다. 일상이 곧 전쟁이다. 이 나라처럼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심각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세대, 성별, 학력 영역에서 한국은 갈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뽑혔다.

올해 초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세계 28개국 성인 2 만3 천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한국은 사회 집단 간 갈등을 측정하는 ‘문화전쟁’ 지표 12개 항목 중에서 무려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단연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꼽힌 것이다.

한국은 문화전쟁의 나라, 일상적 내전의 나라, 최악 갈등의 나라이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이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바로 능력주의다. 좌파도 우파도, 보수도 진보도, 부자도 빈자도, 청년도 노인도, 여성도 남성도, 엘리트도 대중도,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갈갈이 찢어진 대한민국을 묶어주는 유일한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부와 권력을 보상받는다는 이념은 허구적이지만, 이처럼 마력을 지녔다.

언제부턴가 능력주의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 교수다. 그는 최근에 나온 책에서 “능력주의는 폭군”이라고 단언한다.(한국어판 제목은 『공정하다는 착각』이지만, 원어 제목인 “The Tyranny of Merit”를 그 뜻에 맞춰 옮긴다면 『능력의 폭정』 혹은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정도가 온당할 것이다.)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오늘날의 이런 야만 사회로 만든 주범이라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의 승자인 소수 엘리트 집단이 보이는 ‘오만’과 대다수 대중들이 느끼는 ‘굴욕감’으로 미국 사회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였으며, 특히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계급적 증오보다 더 큰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이 폭발한 것이 ‘트럼프 현상’이다.

능력주의라는 폭군이 파괴하는 또 다른 대상은 ‘노동의 존엄’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절망사’에 대한 샌델의 분석도 충격적이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의 원인을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증가에서 찾는다. 샌델은 묻는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하고도 왜 사회적 약자들은 저항하지 않고, 자살하거나 마약에 빠져드는가. 왜 이들은 불의한 사회에 맞서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응징’하는가.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참으로 서늘한 분석이다. 샌델은 이처럼 능력주의가 사회의 공동선, 노동의 존엄,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폭군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 샌델의 분석은 기실 미국보다 한국에 더 들어맞는다. 한국 사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을 겪는 문화전쟁의 나라가 된 것이나, 노동의 존엄성이 물리적으로나(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률), 사회적이

로나(힘든 노동에 대한 멸시) 전혀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수십 년째 유지하는 나라가 된 것이나 - 이 모든 현상은 한국 사회가 미국보다도 더 처절한 능력주의의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논리가 극화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학자 정태인은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이 정도 불평등이면 옛날 같으면 혁명이 일어날” 상황이라고 말한다. 샌델을 읽으니 한국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 듯도 하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불평등과 불의에 직면해도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죽인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주입한 가르침에 따라 불행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무능에서 찾는다. 그리고 자신을 응징한다. 이것이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자살자가 가장 많은 연유이다.

관련 연구: 김누리, 「아도르노의 교육담론」, 『독일언어문학』 제78집 (2017.12), 279-307쪽. 관심 있는 분들은 학술 데이터베이스(RISS, DBpia 등)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제 2. 미래 교육의 이정표, 발도르프 교육

이정희 박사 (사)한국인지학센터)

-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 — 독어학·현대독문학·서양예술사 전공
-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도르프 사범대학 — 슈타이너 인지학 및 발도르프 교육학 전공
-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대표
- 루돌프 슈타이너 저서 및 강연록 전집 번역·출판 프로젝트 총괄
- 『발도르프 육아예술』의 저자
- 역서: 『슈타이너』, 『정신과학에서 바라본 아동교육』, 『발도르프 학교에서 인지학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은 머리로 배우나』, 『인지학 영혼달력』, 『발도르프 아동교육』, 『아기는 놀이에서 배운다』 외



21세기 세계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은 구조화된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고, 나아가 “변혁적 역량”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AI 시대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능력”을 요청한다.

미래 핵심 능력을 포함하여 인간 주체성과 ‘나’다움을 육성하는 발도르프 교육이 한국 미래 교육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교육포럼

미래 교육의 이정표

발도르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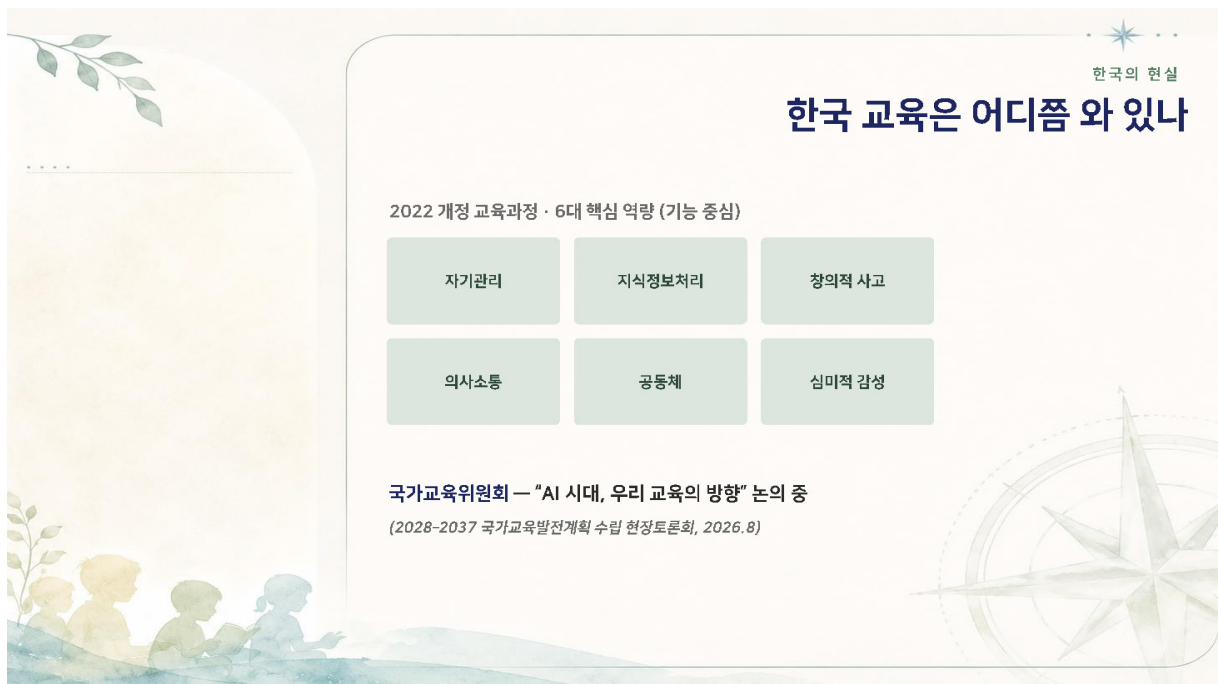
이정희 박사 | (사)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대표
<발도르프 육아예술> 저자

2026. 9. 5.(토) 오후 2시 |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별관 2층 대강당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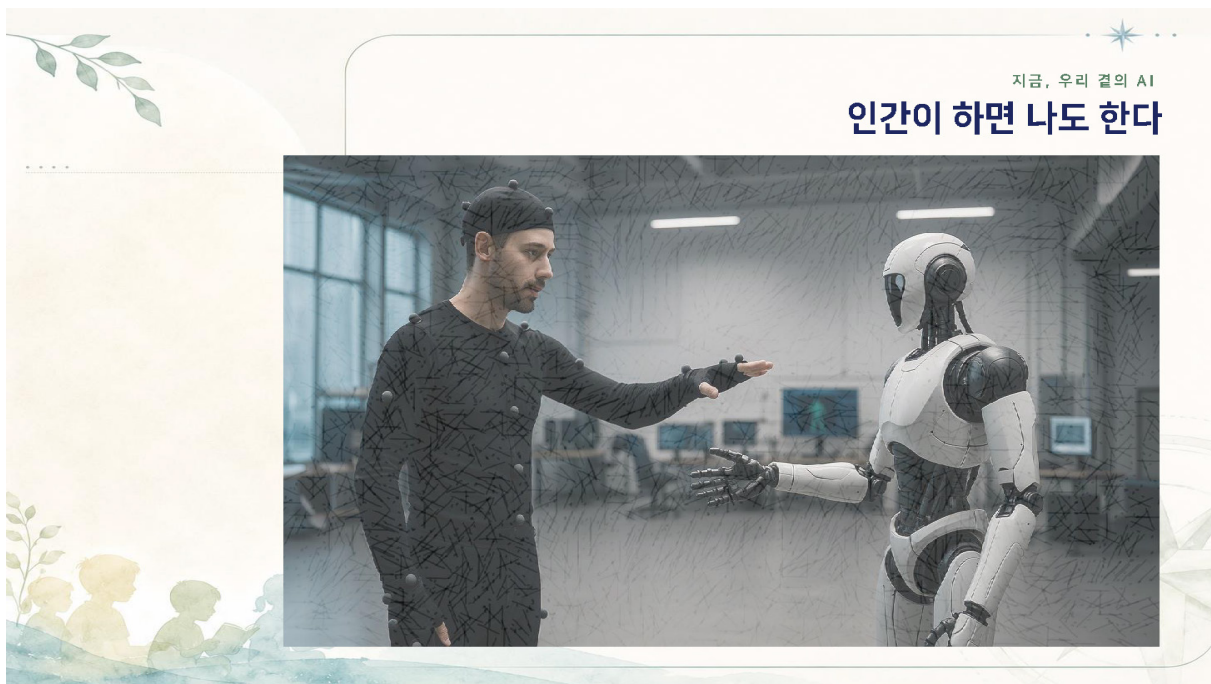
그 이정표는, 과연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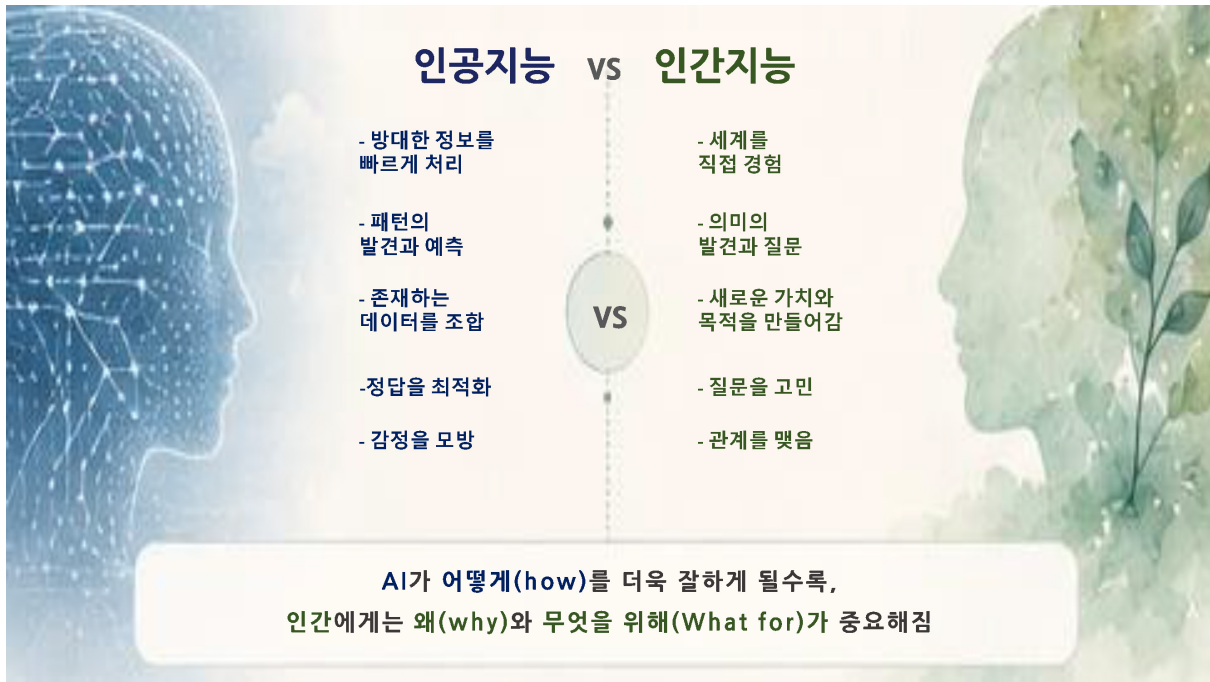
AI 시대에 발도르프 교육을 재발견하다

6



지금, 우리 결의 AI
인간이 하면 나도 한다







“그것들(이 기계들)은 점점 더 자체적인 인격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감정이 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며, 그것들 자체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게 된다. 그것들은 자신의 고유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것들은 스스로 정신적인 경험을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인간은 그것들의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레이 커즈와일, 1999, 『정신기계들의 시대』

발제 3. 발도르프 교육 현장의 소리

이은화 선생님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 2026년 현재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3학년 담임 (세 번째 담임)
- 2006년 학교 전신인 과천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담임교사 시작
- 2004년~2005년 뉴질랜드 타루나 컬리지 발도르프교사 양성과정 졸업 (1년 코스 & 1년 현장 실습)
- 2002년~2003년 학교 개교 초기 2년간 영어교사로 근무
- 2001년 인지학센터 리타 테일러 선생님 동화 강의 통역을 계기로 학교 설립 학부모들과 동화 공부모임 시작
- 2000년 과천자유발도르프학교를 세운 학부모들과 과천 인지학센터에서 처음 만남
- 1998년부터 약 6년간 외국어 학원 영어 강사로 근무



안녕하세요,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3학년 담임교사 이은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00명이 넘는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소속 교사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담이 큰 자리이지만, 그 부담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든든한 동료들이 이 자리에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위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 이런 의미 깊은 포럼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과 경기도 교육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발도르프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학력 인정도 되지 않고,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해 100% 학부모님들께서 내는 교육비로 유지되는 이 교육을 한국 사회에서 지키고 일궈내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부모님들과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발도르프학교에 있는 5학년~12학년 학생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를 낭송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시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물론, 1~4학년들이 낭송하는 시도 있지만, 시간상 오늘은 5학년~12학년들이 낭송하는 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태양이 빛나고
별이 반짝이며
돌이 놓여 있고
식물이 생기 있게 자라나고
동물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곳에 영혼을 지닌 인간이
정신에게 집을 줍니다.
나는 영혼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영혼.
신의 정신은
태양과 영혼의 빛 안에서
우주 공간, 저 밖에서
영혼 깊은 곳,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오 신의 정신이여!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향합니다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축복이
내 안에 자라나게 하소서

인간존재인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정신의 힘으로 세상과 함께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자 우리는 배운다고 이 시에서 말합니다.

발도르프학교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담임동의 아침 풍경을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7시 20분, 그 전부터 학교에 도착해서 가방을 현관문 앞에 순서대로 놓습니다. 현관문은 7시 50분에 열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전에 도착해서 앞마당에서 뛰어놀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고 약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실마다 노랫소리와 시 낭송하는 소리, 리코더 연주하는 소리, 움직임 활동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학년 교실일수록 교실 밖으로 들려오는 학생들의 소리는 우렁차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교실마다 정적이 흐르듯 조용합니다. 교실 문 너머로 살짝 보면 학생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발도르프학교 선생님들의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학생들은 칠판에 그려진 그림도 따라 그리고, 정갈하게 쓰여진 글씨도 따라 쓰면서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요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년마다 듣는 이야기의 영역은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그날 끝나지 않고 다음 날로 이어지는 이야기일 때 학생들은 아쉬움을 크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일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보통, 3학년까지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칠판에 그려준 그림을 따라 그리고, 써준 글을 잘 받아쓰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들의 공책을 만듭니다. 4학년이 되면서 서서히 수업에서 들은 이야기들 중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직접 공책에 그리고, 글도 스스로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급동에서는 이와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궈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상급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면 줄을 서지는 않습니다. 바로 교실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지켜서 등교를 하지만, 가끔은 수업시간에 맞춰 급하게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나 지각하여 후다닥 교실로 뛰어가는 모습도 간간히 보입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위 시에서 바라봤듯이, 인간은 물질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영혼발달 단계를 중요하게 바라보며, 학년마다 그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교실은 아주 오래된 옛날이야기와 요정들, 천사와 숲속의 온갖 동물들과 자연의 정령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 환타지와 이야기 세계 속에서 숫자도 나오고, 형태와 선을 배우고, 그 속에서 문자도 배워나갑니다. 1학년은 “교실천사님이 내일은 무슨 색 크레파스를 선물로 주실까?”라며 기다리고,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듣다가 주인공이 위험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내는 장면에서 벌떡 일어나 “야호!”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간에 일어나는 잦은 갈등도 금방 풀고 돌아서 다시 웃으며 함께 놀입니다. 이렇게 저학년들은 의식이 세상과 하나로 연결되어 기쁨과 경이감으로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물론, 학년이 높아지면서 아이들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수업방식도 변화하겠죠!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은 모든 지식을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익히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사람’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발도르프 교사들은 스스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도르프학교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배움으로 가져갈 내용들을 자신 안에 오롯이 담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교실로 들어갈 때 교사는 개인의 자아는 문 밖에 걸어두고 온전한 한 교사로서 교실에 들어가며, 자신의 뒤에는 학교의 모든 동료교사들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납니다. 학생들은 귀 기울여 수업을 듣고, 들은 내용을 공책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만의 교과서를

정성 들여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러진 온전하게 귀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힘은 학교에서보다는 밖에 나가서 더 두드러집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소방교육, 자전거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8학년 마칩여행을 다녀보고, 현장학습을 가보면 기관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 아이들 같지 않네요. 집중하는 시간이 길고 참 잘 듣네요.’입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또한 학생들 개별의 고유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배우고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각 개별의 존재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왔는지 그 신비로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학생관찰을 진행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고민하며 학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개별성이 꽃피어나는 큰 계기 중 하나가 바로 8학년 프로젝트와 12학년 프로젝트 발표회입니다. 6개월 또는 1년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선택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가 실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만나고, 마지막엔 주제에 적합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글을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은 그동안 학생들이 자신과 직면하면서 가졌을 고뇌의 시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기에 가슴 뭉클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지나온 과정에 대해 모인 청중들은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보냅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개별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8학년과 12학년에 서 진행되는 연극은 특별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술이 완성되기 위해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온전하게 함께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내적으로 깊이 얻었던 학생들은 졸업 후 사회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 졸업하고 나면 사회활동에 또는 이후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학교 4년 동안 상급생활을 하고 나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여럿이 함께 일을 할 때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또래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를테면 어떤 일을 할 때 일 순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일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 졸업 이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형성해 갈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졸업생들은 오히려 12년 동안의 학급 경험에서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힘,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내면에 잘 형성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

*** 언제라도 지지하고 만날 수 있는 평생 친구들을 얻었다.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다.

*** 프로젝트, 연극 등을 통해 협동심 필요한 작업 많이 한 것이 정서적 여유, 안정감을 줬다

*** 외부에서 만난 이들과 관계를 위한 계산 필요치 않다.

저의 동료들에게 발도르프교육이 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 반에서 티셔츠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무려 세 달 간의 논의 끝에 결국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 있는 티셔츠를 가져와서 각자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를 잘 드러내는 것 / 각자 원하는 디자인이 다른 것 / 예산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었던 것 / 친환경적인 가치를 담을 것... 이 모두가 어우러진 결과였다고 학급 담당교사가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 모습이 아닐까 하셨습니다. 원칙을 적용하되 유연할 것 /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 / 함께 꿈꾸며 이상을 가지되 나와 나는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올 것.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졸업하는 상급 친구들이 모두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본인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사례도 학급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 예전에 11학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방과 후에 남아서까지 학급회의를 했습니다. 안건은 “안건을

처리하는 기준”이었고, 2/3로 통과(1명), 만장일치 통과(1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6주간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라면 2/3로 통과시키면 되는데도 만장일치로 바꾸자는 안건을 2/3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6주간 공들여 논의한 겁니다. 참 비효율적인 제도이지만 만장일치제도는 그냥 “권리”의 중요성을 넘어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주변환경의 도움과 영향으로 나를 마주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느끼고 알아가며,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으로 이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만큼의 발걸음을 딛는 교육을 하는 학교이기에 발도르프교육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갈등이 생기면 가해와 피해자로 나뉘 서로 자신의 잇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때로는 거짓으로 타인을 눌러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문제를 선물로 받아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해가면서 연결을 경험하는, 그래서 문제로 인해 함께 성장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런 경험은 학생들 내면에 용기를 줍니다. 물론, 갈등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서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함께 최소 8년~12년을 함께 생활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발도르프교육에서는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술은 인간 내면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받은 예술수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학교에서의 다양하고 많은 경험: 합창 실습 오케스트라 연극 등 예술적 향유가 세상에 나가서 대화하고 경험할 때 도움이 된다.

*** 다양한 예술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살면서 힘이 된다.

*** 경쟁사회에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았다.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사회인들이 놀라기도 한다.

*** 삶에서 중요한 질문이 수업에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 질문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좀 더 여유 있게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한다.

*** 학교 다닐 때 손으로 직접 만들고 기획하고 했던 여러 경험이 실제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예술은 꾸준히 반복적인 연마를 통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의지적 힘을 키워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예술 과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발도르프학교에서는 교육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사는 매 순간 깨어서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호흡 속에서 들숨과 날숨이, 진지함과 유머가 적절하게 살아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던지는 아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고, 밤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그 아이를 떠올리면, 다음 날 아니면 곧 그 아이와 이 관계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실 것이기에 경험을 나누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온 눈에 보이지 않는 끝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보이거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보일 때, 교사의 내면은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교사가 8년간 아이들을 담임으로 만납니다. 매년 똑같은 모습이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발도르프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에 동반하기 위해, 부모님들과 건강한 교육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과 명상, 삶 돌아보기, 되어가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공부는 발도르프학교 교사들에게 빠질 수 없는 필수항목들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은 발도르프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교사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발도르프학교에서는 목요일에 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청계학교는 2시 20분부터 4시까지 과정보별 회의를 진행하고, 4시 이후부터 전체 공부와 예술 활동 그리고 교육회의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안건들을 다룹니다.

*** 교사들의 교육비나 연수비를 얼마나 지원할지, 절기 축제날 점심을 어떻게 할지,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를 논

하는데 2~3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기에 어떤 의식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동등한 권리, 의무, 책임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지난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집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수공예를 배우고, 외국어를 2개나 배웁니다. 발도르프학교 외국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내적인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리고 모호함을 참고 견디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교실의 외국어 수업 시간엔 책이 없고, 노래와 첸팅과 움직임과 게임과 이야기로만 이뤄집니다.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대바늘 뜨기, 코바늘 뜨기, 바느질, 십자수, 양말, 장갑 뜨기, 실내화 만들기, 인형 만들기, 재봉틀, 등나무 공예, 직조, 북 바인딩, 등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색에 대한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리드미한 움직임으로 좌우 협응능력일 키우며, 자유로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면서 창의적인 힘들을 펼쳐나갑니다.

그 외에도 목공예, 금속공예, 조소, 석공 등을 통해 삶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면서 재료를 다루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수성을 키워가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발도르프학교들이 AI가 대세가 되고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멋진 교육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디어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을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발도르프학교들은 최소 8학년까지는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며, 그 외의 다른 미디어들로부터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윤리의식을 일깨우고 학생들이 미디어를 접할 때, 간혹 있을 수 있는 탈선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건강한 도덕성이 내면에 살아있다는 뜻이겠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까지 살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가능한 학교가 바로 발도르프학교입니다.

***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었다고 자백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생이 죄책감 때문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잘못한 것은 맞으니, 부모님들과 이야기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물건값 배상하고 사죄한 후 학교에서 앞으로 이런 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함께 침묵 수행을 1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전혀 알릴 필요 없이 그 일을 한 아이들과 저만 알고 지나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은 그 나이에 맞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도 함께 배워갑니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의 3주체입니다.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없으니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겠지요. 현재 한국에 있는 발도르프학교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교육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재정적인 지원도 국가나 시로부터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재정 부담을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부모님들은 교육의 수요자가 아니라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에 오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중적인 의무와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지만, 학비를 내면서도 학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그 헌신에 대한 대가는 물론 아주 특별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쏟으신 그 헌신은 정신세계에 잘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세계에서는 오히려 가끔 비난과 질책을 받기도 하지요,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지만 힘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앞으로 오게 될 또 다른 일을 위한 훌륭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도르프학교는 학생(어린이)은 학생(어린이)다울 수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 설 수 있으며, 부모는 부모로서 설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교육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발도르프 교육의 현재와 미래

신다인

2014년 푸른숲발도르프학교 졸업.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로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이민형

2017년 고양발도르프학교 졸업. 현재 해외 대학에서 자신
의 관심 분야를 공부하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윤동휘

2022년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졸업. 현재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
다.

고민아

부산발도르프학교에서 두 아이의 12년 졸업을 마치고, 한
국발도르프학교연합 및 부산 대안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공
공성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한글표준문법학교 교육과정

의지 감성 사고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연혁 및 활동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연혁

- 1919 발도르프교육의 시작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간관과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첫 발도르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 2009 교사연합 시작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육은 무엇인가?”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한국 발도르프교육의 연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 2019 학부모연합 시작
아이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부모들이 모여 학교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길을 열었습니다.
- 2021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출범
교사와 학부모의 연대가 학교와 학교를 잇는 힘으로 자라나 15개 학교가 함께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을 이루었습니다.
- 현재 세계와 함께하는 발도르프교육
100년을 넘어 이어진 발도르프교육은 현재 71개국, 1,291개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교사연합의 흐름

- 정기적인 교사연수 및 세미나 운영
 - 교육과정 및 발도르프 교육 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
 - 국제 교류(AWTC 등)를 통한 교육 확장
 - 교사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강화
 -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 협력 지속
- 교육의 본질을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기반

학부모연합의 흐름

- 학부모 간 교육 이해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 마련
- 학교 간 교류 및 공동 워크숍 진행
-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공통된 이해 형성
-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확장

나를 넘어 우리로 확장되는 교육 공동체의 실천

회원학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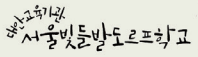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Korea Association of Waldorf Sch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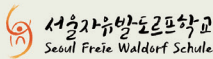
고양발도르프학교
Goyang Waldorf School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15번길 115, 1층
☎ 031-965-0294 / 2014년 설립 / 8학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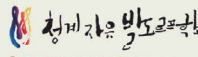
서울비들발도르프학교

서울시 강서구 수영로2길 96
☎ 010-3848-3376 / 2019년 설립 / 8학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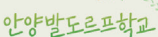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Seoul Freie Waldorf Schule

경기도 부천시 육길로 56번길 97
☎ 070-5166-1591 / 2012년 설립 / 12학년제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189
☎ 070-4322-0200 / 2002년 설립 / 12학년제



안양발도르프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5
☎ 031-472-9113 / 2005년 설립 / 12학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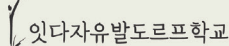
향천사과광명발도르프학교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사로 117-15
☎ 041-333-6888 / 2022년 설립 / 8학년제



무등자유발도르프학교
MUJEUNG FREE WALDORF SCHOOL

전남 담양군 수북면 고리대길 106-29
☎ 061-383-1175 / 2014년 설립 / 12학년제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서록화암길 34-20
☎ 061-382-2016 / 2016년 설립 / 12학년제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Korea Association of Waldorf Schools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QR코드를 촬영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www.waldorfedu.org



정보 수정 및 업데이트, 이미지 사용 문의
보리엔스토리(by9293@gmail.com)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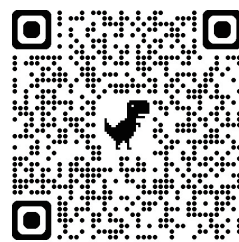
아래 QR코드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확인하세요



포럼자료집 다운로드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포럼 만족도 조사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Korea Association of Waldorf Schools